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4. 4. 29
- 제공자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 과 장 : 정 황 근
- 사무관 : 최 병 국
- 전 화 : 500-1808

이 자료는 2004년 4월 3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농정방향, 친환경농업으로 전환기로

- 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 대책 발표
- 4.30일 소비자·생산자·정부, 대규모 실천다짐 대회

- ☐ 친환경농업정책을 인증농산물 위주에서 농업전반으로 확대
- ☐ 4대강 유역, 새만금 상류등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단지당 1,000ha이상, '13년까지 총 50개소 조성
- ☐ 친환경안전농산물로 소비자 신뢰 확보 추진
  - 2013년까지 화학비료·합성농약 40% 절감으로 농산물의 전반적인 품질 제고
    - 화학비료 보조중단('05.7), 내년부터 천적방제로 전환 지원
  -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GAP 실시 : '05년까지 96개 품목 지침 및 법적근거 마련
    - '06년부터 생산이력제 본격 실시(금년 약 350농가 시범실시 중)
  -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조기에 선진국 수준인 10%이상으로 확대
    - 인증제도는 더욱 엄격히 적용, 소비자 신뢰 확보
  - 쇠고기 생산이력제, 음식점의 식육원산지표시제 등 안전 축산물 관리 강화
- ☐ 친환경 농업의 조기확산을 위한 각종지원 확대
  - 유기질비료 보조 확대 및 녹비작물 재배 확대
  -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저투입 농가까지 대폭 확대
  - 연구·지도도 생산성 향상 중심에서 친환경으로 전환
  -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 우수 시·군, 생산자, 유통인 시상
- ☐ 농가의 인식전환과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4.29일 앞으로 농정의 기본목표를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안전농산물 공급에 두겠다고 말하고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
- 우선 그동안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4대강유역, 새만금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특구로 지정되는 시·군단위 등에 대 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추진
  - 2005년에 평야지대, 산간인접지대, 수계변 등 3~4개의 모델 개발 완료와 함께 대상지역 조사
  - 2006년부터 개소당 1,000ha이상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착수
    - 단지내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종·축산 자연순환형 농업을 유도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
      - \* 현재 농림부·환경부 공동으로 축산분뇨 관리·이용기획단 구성 운영 중
      - 축산분뇨 자원화 및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미생물 배양시설 등이 설치되고 친환경 경종·축산 등 생산유통단지와 생태 마을, eco-park 등 친환경·관광농업 종합단지가 조성됨
  - ※ 그동안 조성한 소규모 친환경지구 611개소 중 40개소 조사결과 소득은 20~23% 증가, 농약 46%·화학비료 30% 절감 효과로 성공적 기반 구축
    - 홍성 홍동지구는 전체논의 절반(135만평)을 오리쌀단지화하여 시중가보다 66% 비싼 265,000원(80kg)에 판매
    - 울진 왕피지구는 원예작물 19만평 재배, 50% 이상 고가에 판매

□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높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

- 대책에 따르면 농림부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4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로 매년 5% 수준씩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 농산물 안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05년까지 96개 품목 지침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GAP제도를 실시하고, 생산이력제도 '06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 친환경인증농산물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2% 수준에서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확대 시행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 친환경 축산직불제 및 등록제도 계획대로 시행키로 하였다.
- 이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안전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이 처한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이 갖는 국토환경 보전기능을 제고하여 생명산업으로써의 농업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해 농림부는 연차별·부류별로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감축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과 함께 영농현장 지도를 생산성 향상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화학비료 차손보조는 점차 줄여 '05년 7월에 완전히 폐지하고, 그 대신 유기질비료 차손보조 및 녹비작물 종자 보급은 지속 확대하며

- 시설원예의 농약사용을 천적방제로 대체하기 위해 '05년부터 천적구입비 지원 예산반영도 추진하여
    - 2013년까지 전체시설원예의 50% 이상을 천적방제로 전환 유도
  - 벼·사과·배·노지고추·시설오이 5개 품목을 비롯, 주요 작목에 대해 재배력에 따라 친환경적 시비 및 농약살포지침을 작성하여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 소비자단체와 협의, 소비자들이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시비, 농약살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이러한 대책의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대상을 제정, 수여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공급을 2010년까지 10%로 늘리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단계, 홍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현재 유기 및 무농약인증농산물 생산농가에 한정된 친환경 직접지불제를 저농약 인증농가, 저투입 실천농가로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 또한 친환경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친환경농산물 구매자금 금리 인하(현행 4%→3%)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그간 생산성 위주의 농업기술개발도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에서 최종소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 금년 9월까지 사료내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53종 → 30종 내외)하고,
  - 금년 10월까지 사료공장 HACCP을 도입하고, 도축·가공단계의 HACCP 적용을 확대하며,
  - 쇠고기 생산이력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아래 음식점의 식육원산지 의무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농업인의 인식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농업인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며,
  - 우선 4월 3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생산자·정부 등이 참여하는 선포대회 『대전환 21, 친환경안전농산물 시대로!』를 갖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짐을 할 계획이며,
    - \* 농림부, 농협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농업단체협의회 공동주최(400명)
  - 평소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앞장서온 텔런트 김미숙씨를 『친환경농산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친환경농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 



## 농외소득증대

「대전환 21, 친환경안전농산물 시대로 !」  
실천다짐 대회 계획

2004. 4

농 립 부

## 1. 행사컨셉

- ☐ 친환경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식탁에 올리는 것만이  
우리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임을 천명
  - 농업인은 친환경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믿고 많이  
소비해 주어야 쾌적한 녹색공간 유지로 국민 모두에게 유익
- ☐ 농업인·유통인·소비자와 관련 기관·단체가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를 위해 해야할 역할을 확인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 마련

## 2. 행사계획

- ☐ 일 시 : 2004. 4. 30. 14:00 ~ 15:10
- ☐ 장 소 : aT센터 대강당
- ☐ 행 사 명 : 「대 전환 21, 친환경안전농산물 시대로 !」 실천다짐 대회
- ☐ 주 최 : 농림부, 농협중앙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비자  
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 참석인원 : 400명(생산자·환경농업단체, 유통인,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등)
- ☐ 주요내용
  - 「왜 친환경농업인가 ?」 영상물 상영
  -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대표의 친환경실천의지 다짐
  - 친환경홍보대사 위촉(위촉장(안) : 별첨1)
  - 결의문 채택(결의문(안) : 별첨2)

### < 부대행사 >

- 친환경안전농산물 및 친환경자재 전시(관련 유통업체)
- 시식코너 설치 운영 등



### 3. 참석 대상

○ 생산·유통·소비자 및 관련단체, 지자체 등 400여명

|       | 인원(명) | 세 부 내 역                       |
|-------|-------|-------------------------------|
| 합 계   | 400   |                               |
| 생 산 자 | 114   | 환농연 및 농업인 29, 조합장 75, 축산단체 10 |
| 유통 인  | 62    | 일반유통인 39, 축산유통 8, 친환경유통 15    |
| 소 비 자 | 73    | 생협·한살림 등 29, 고향주부모임 등 44      |
| 정부 등  | 151   | 농진청 17(본청8), 시도등 68, NGO 등 59 |

#### < 주요 참석자 >

##### □ 관련기관·NGO

- 농특위 장원석 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천주 회장, 소시모 강광파 이사, 서울 YWCA 김숙희 회장

##### □ 환경농업 단체장

- 환농연 회장, 유기농협회장, 친환경조합협의회장, 한살림 회장, 카톨릭농민회장

##### □ 농민단체장

- 한농연, 전농, 전여농, 한여농, 기술자협회, 지도자, 농가주부, 새농민, 전업농, 생활개선, 포도회, 과수조합연합, 신지식농업인회

##### □ 농정개혁자문단 : 16 /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 : 14

##### □ 친환경 우수 지자체장 : 6(양평, 홍천, 홍성, 함평, 울진, 산청)

※ 기타 주요참석 : 농촌진흥청장, 농협중앙회장, 박홍수 의원 당선자

## 시 간 계 획

|               | 시간  | 내 용                                            | 비 고                   |
|---------------|-----|------------------------------------------------|-----------------------|
| 14:00~14:05   | 5분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사회자(농협)               |
| 14:05~14:10   | 5   | 내빈소개                                           | “                     |
| 14:10~14:15   | 5   | 대 회 사                                          | 농협중앙회장                |
| 14:15~14:20   | 5   | 치 사                                            | 농림부장관                 |
| 14:20~14:25   | 5   | 축 사                                            | 환경운동연합 대표             |
| 14:25~14:40   | 15  | 「영상보고, 왜 친환경농업<br>인가?」 영상물 상영                  | *제작: KBS플러스(신동환)      |
| 14:40~14:55   | 15  | 생산자·유통인·소비자의<br>다짐 발표                          |                       |
| · 14:40~14:45 | (5) |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계획                                  | 농업인 대표                |
| · 14:45~14:50 | (5) | 소비자의 다짐                                        | 소비자 대표                |
| · 14:50~14:55 | (5) | 유통인의 다짐                                        | 유통인 대표                |
| 14:55~15:00   | 5   | “친환경안전농산물 홍보대사”<br>위촉(텔런트 김미숙)<br>- 홍보대사 인사 말씀 | 농림부장관<br><br>홍보대사     |
| 15:00~15:05   | 5   | 결의문 낭독                                         | 생산자·소비자·<br>유통인·정부 대표 |
| 15:05~15:10   | 5   | 폐 회                                            | *폐회 후 전시품 관람          |

\*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농업인의 다짐

우리 농업인들은 오늘 우리 농업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기꺼이 그 길의 선두에 서겠다는 뜻을 다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증산과 부족한 쌀의 공급이 지상명제였던 시기에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자부한다. 아울러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의 투입에 크게 의존했던 시대도 이제는 변하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일이 최고의 목표로 되었다. 그것이 우리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수입개방의 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길임을 인식한다.

화학비료를 덜 치고, 합성농약 사용을 줄여서 전국의 논과 밭, 샅장에 메뚜기, 개구리, 미꾸라지가 뛰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살기 좋은 국토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이 또한 우리 농업의 살길임을 인식한다.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안전 농축산물을 공급하면서 국토환경도 보존하는 일은 우리 세대를 넘어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에 대한 참으로 엄중한 우리들의 의무라는 점을 깊이 새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에 의존하던 오랜 영농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겠다고 다짐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고, 국토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농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행여 아직도 화학비료를 많이 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이웃 농업인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길을 가자고 기꺼이 설득하고, 아직도 합성농약을 한번 더쳐야 농사 편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소비자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한번 더 생각하면서 실천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강대강 많이만 키워서 팔자는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100% 안전한 축산물을 추구한다는 각오로 축산물의 위생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 축산업과 축산인이 살고, 소비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긴다.

이러한 굳은 다짐 위에서 우리는 정부가 친환경농업으로의 대전환에 기여이 나서고, 유통인들도 하루 이틀의 이윤에 현혹되지 않고, 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가 오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들도 절만 좋은 농산물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농업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같이 지켜나가는 마음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을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농업인들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에만 안일하게 의존하던 과거와 아무런 미련없이 단절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시대로 나아감을 국민들 앞에 엄숙히 선포한다.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손쉬운 화학비료와 농약의 유혹이 크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은 우직하게 친환경농업으로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결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2004. 4. 30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이태근

## 소비자의 다짐

먼저 오늘 생산자와 유통인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소비자 대표로서 소비자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먹거리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소중하게 취급하고 다루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농업의 위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 우리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거기에다 수입개방 까지 겹쳐서 매우 어렵다는 언론의 소식을 접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농업이 일부에서 우려하는대로 여기에서 주저앉게 된다면 농촌에 남아있는 푸른 들판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도 잊혀지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 국민들의 정서도 지금보다 더 메마르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뿐만아니라 농촌이 황폐해지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우리의 권리마저도 포기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 농촌이 살아야 소비자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지금이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겉과 속이 다른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농약이 묻어있는 농산물을 팔기도 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농산물도 믿고 사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농산물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품질좋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의 식탁에 올려놓겠다는 생산자의 다짐을 들을 때 이제는 안심하고 우리농산물을 사도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농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품질 좋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원활하게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중에 팔리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이나 건강에 나쁜 물질이 들어있는지 검사를 자주해서 불량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회원모임이나 교육, 그리고 회보지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사랑하고 많이 소비 하는 것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점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비자의 다짐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30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 유통인의 다짐

오늘날 우리 농업의 존속과 먹거리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되고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성이 높은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일반 농산물 위주로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친환경안전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어디를 가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언론을 통해 각종 가축질병 등의 소식을 접할 때 축산물은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더 안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다시말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의 유통은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확대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유통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한다.

첫째, 친환경안전농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코너를 보다 많이 설치하고 매장의 규모도 계속 확대하며, 전자상거래 등 판매망을 다양화해 나간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적정가격으로 받고 팔 수 있도록 계약생산을 확대하여 친환경안전 농산물이 보다 많이 생산되도록 노력한다.

셋째, 친환경안전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물량의 수집과 분산기능을 강화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적정 가격을 형성,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넷째,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저장·운반·판매시설 등을 더욱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로 개선·보완해 나간다.

다섯째, 친환경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그리고 국내농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2004. 4. 30

(사)한 살림 회장 박 재 일

## 결 의 문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소비자·유통인 그리고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을 위해 다같이 하나되어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농업인은 생산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나. 소비자는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는 것이 쾌적한 녹색공간 유지와 생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믿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구입에 앞장선다.

하나. 유통인은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구축과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매장설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하나. 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도별 육성목표와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유통인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2004년 4월 30일

|          |               |     |
|----------|---------------|-----|
| 농업인 대표 : | (사) 정농회 회장    | 강대인 |
| 소비자 대표 : | (사)서울YWCA회장   | 김숙희 |
| 유통인 대표 : | (주) 농협유통 전무   | 이재성 |
| 정 부 대표 :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정황근 |